

# ‘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화

## 큐코드 등록 의무화……단기비자도 중단

## 도착 인천 일원화…위험 커질 땐 주의국 지정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

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

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 4곳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경우 중국 노선이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단,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사활 늦춰 오는 5월부터로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그러나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대본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경우 주의 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박병규 광산구청장, 환경직 노동자들과 '활기찬 새해' 시작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2일 새벽 광산구생활환경종합센터를 방문해 환경직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떡국을 나누며 활기찬 새해를 열었다. /광산구 제공

## 동구 공직자 가뭄 위기 극복에 앞장

### 전 직원 물 절약 실천 운동 인증샷 등 총력전

동구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저수지 고갈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어지는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공직자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달 28일 부구청장 주재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운동 4차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내용으로는 전 직원 물 절약 추진실적을 체크하고 부진한 부서를 대상으로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을 독려했다. 공직자들은 각 가정에서 계량기 수압 조절, 양변기에 벽돌 넣기, 싱크대 밸브조절, 양치 컵 사용하기 등 인증샷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물 절약 실천 운동을 진행했다. /김도기 기자

그 결과 동구는 현재 전 직원의 88%가 생활 속 물 절약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또 공동주택단지별 거주 공무원 책임관을 지정 운영해 주민 수압 조절을 해주고 있다. 물 절약 실천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후 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시 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동별 ‘당동! 물끄러미 실천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동별 전문가, 통장, 공직자들로 꾸려진 ‘당동! 물끄러미 실천단’은 직접 가가호호 세대를 방문해 수압 조절을 돕고 있다. /김도기 기자

## 광주서도 택지개발

### ‘벌떼 입찰’ 의혹 수사 본격화

광주경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사 2곳에 대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령 계열사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택지개발사업 시공사 낙찰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역 건설사 2곳 직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광주 지역 내 LH 주도 택지개발 사업 참여 입찰 과정에 여러 계열사를 동원,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유령회사 등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에 참여하는 편법을 가리킨다. 명의 도용 등을 거친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여 실제 시공은 사실상 본사가 맡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건설사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벌떼 입찰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폐이퍼컴퍼니 여부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해서 명백한 업체 10곳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기만 기자

## 광주시 11일까지 설 대비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집중 점검

광주시는 설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고기·돼지고기·계란 등 설 선물과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에 등록된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3500여 곳 중 대형상점·전통시장 내 업소·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 이력업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광주시에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보관·운반 때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과 영업장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 이력제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과 동시에 축산물을 수거, 변질 여부와 성분검사 등을 한다. /조일상 기자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재점검 등을 진행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및 식품안전나라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지난 한 해 642곳을 점검하고 492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검사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도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을 진행,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 전남도 귀어·귀촌인 ‘창업·주택자금 저리융자’ 25일까지

### 창업 3억·주택 7500만원…연리 2% 적용

전남도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어·창업·주택구입 용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창업과 주택 분야로 각각 연리 2% 저리융자를 적용,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창업은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가공·유통업, 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등 최대 3억원이며, 주택 구입과 신축·리모델링은 최대 7500

만원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어·귀촌인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어촌으로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귀어 관련 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사람은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갖춰

시·군 귀어·귀촌 업무 관련 부서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수혜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올해부터 귀어·귀촌인(희망자)의 사업 수혜 편의를 위해 신청 횟수를 1회에서 4회로 늘려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창업·주택 구입 자금 지원과 함께 어촌살이 기회 제공, 수산업경영 기술 교육도 함께 추진해 수산업 중심의 젊고 활기찬 어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 순천소방방, 마을버스 교통사고…11명 인명구조



순천소방서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3시 39분께 구례군 문척면 도로상 30여 명이 승객이 탑승한 마을버스가 가드레일 벽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 10분 만에 현장도착해 구조작업을 실시했다.

탑승자 30명 중 11명의 탑승객을 성가물로병원 등으로 이송, 19명은

자차 등으로 조치했다. 박상진 순천소방서장은 인명구조를 최우선 지시하고, 구급차 등 소방차량 11대를 투입, 신속한 출동이 나왔다.

한편 구례 사성읍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던 마을 셔틀버스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가드레일 벽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순천=조준익 기자

#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